뮤지컬 영화 <별을 헤다>

1차 오디션 지정대사

이혜성役

남/29

전직 뮤지컬 배우. 20대를 다 바쳐 뮤지컬 바닥을 전전했지만 결국은 단역에서 그치고 말았다. 큰마음 먹고 중소기업 인턴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맞다. 하지만 적성에 잘 맞는 것과 잘 하는 건 별개인 듯 허둥대고 실수를 많이 해 혼이 많이 난다. 개성 있고 자유로운 이미지지만 실은 생각이 많고 현실에 타협도 곧잘 한다.

이 좋은 기회를 그만두겠다고요...? 어차피 다른 회사 가도 똑같을걸요. 나랑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. 아니, '내 자리'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. 내가 만들면 그만이지. 솔직히 비슷한 경험을 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지 않아요?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는 거. 잘 될지 안 될지... 기약도 없는 델 걸어가야 되는데, 툭 까놓고 말해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. 꿈만 갖고 그게 되나.

정한별役

여/30

전직 가수. 길에서 노래하는 게 익숙하고, 관객이 없는 것에도 담담해졌다. 인디 가수로 꽤 오랜 시간을 버텼지만 빛을 보지는 못했다. 차가운 이미지에 단답형인 편. 하지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장해제. 현실에 타협해보고자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직했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 가있다.

아, 살 것 같다. 여기 자주 오거든요. 골방에서 음악작업하다가 답답하고 힘들면 왔어요. 탁 트인데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뭔가 위로되는 느낌? 근데 또 이젠 그만 오고 싶기도 해요. 위로 받을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랄까... 그럴 일은 아마 없겠죠? 알면 알수록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.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너무 버거운 일인 것 같아요. 누가 좀 정해주면 좋겠다, 정말 매일 생각했어요.